

지역 사립대 교육비 안쓴다

조선대 등 학생 1인당 평균 835만원…수도권 절반

“등록금 상대적으로 싸다지만 교육 투자엔 인색”

대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기 벅차울 정도로 대학 등록금은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해 쓰는 교육비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은 수도권 지역 사립대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조선대·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4개 주요 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은 686만원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35만원(2009년 기준)으로 파악됐다.

연세대와 고려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수도권 6개 주요 사립대의 경우, 한해 평균 등록금은 824만원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05만원이나 돼 지역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등록금은 20%밖에 낮지 않으면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0% 정도나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에 비해 학생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인 전남대의 등록금이 432만원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164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지역 사립대들

은 전남대에 비해 등록금은 40%나 더 걸으면서도 학생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40%나 적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사립대이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혜택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시행할 때는 지역 사립대의 학생에 대한 투자 정도를 등록금 인하와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A대학의 한 학생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시마다 물가 인상과 대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면서 “하지만 똑같은 사립대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우리 지역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턱없이 낮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2020년 중·고생 30% 감소

저출산 여파…초등생은 17% ↓

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2020년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가 올해와 비교해 17%, 중·고교생 수는 30%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여건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교사를 지금보다 매년 최대 5000명 정도 올해보다 1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이영 한양대 교수 등 연구진이 이달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2012~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출산율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312만2천여명인 초등학생은 내년에 293만1000여명으로 196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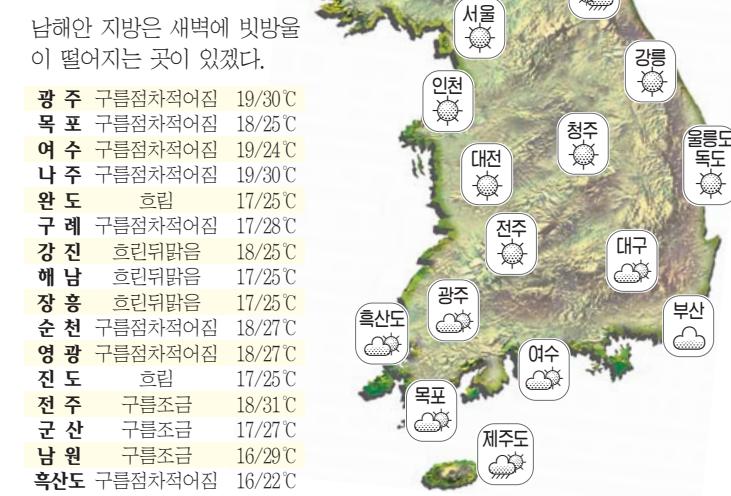
이어 2013년 286만5000여명, 2015년 278만9000여명, 2017년 277만6000여명으로 줄어든 뒤 2020년에는 259만3000여명으로 올해보다 1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올해 380만5000여명인 중·고교생의 경우에도 2013년 359만2000여명, 2015년 323만6000여명, 2007년 290만여명으로 줄어 2020년에는 264만4000여명으로 올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물 05시 18분 해진 19시 49분 달물 20시 17분 달진 05시 22분

남해상 너울성 물결



| 〈오전〉 | 비다 | 풍향 | 파고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서해 남부 | 일비다 | 북~북동 | 0.5~1.0m | 낮 | 0~100 | 0~10 |
| 민비다 | 북~북동 | 1.0~2.0m | | | | |
| 남해 서부 | 일비다 | 북동~동 | 1.5~2.5m | 매우높음 | 경고 | 높음 |
| 민비다 | 북동~동 | 2.0~3.0m | | | | |
| 〈오후〉 | 비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 앞비다 | 북~북동 | 0.5~1.5m | 02:26 | 07:42 | |
| 민비다 | 북~북동 | 1.0~2.0m | | 14:19 | 19:39 | |
| 남해 서부 | 일비다 | 북동~동 | 1.0~2.0m | 여수 | 09:07 | 03:16 |
| 민비다 | 북동~동 | 1.5~2.5m | | | 21:54 | 15:10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공공장소 날뛰는 조폭

경찰청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은 오는 9월14일까지 3개월 간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폭력조직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고 문신을 노출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폭력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흥서 3.7 규모 지진

15일 오후 2시 21분 고흥군 남남동쪽 111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15일 고흥 앞바다 지진을 포함해 모두 26회이며 규모 3.0 이상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오늘부터 18면에 실습니다



배추값 폭락 농심은 화났다

최근 배추값이 포기당 7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폭락한 가운데 15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한 배추밭에서 출하를 포기한 농민이 트랙터로 밭을 갈아 엎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픁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서울
총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제10227-중-20563호

*조감도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 서울우리들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 풍부한 경험의 의료진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